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 ‘그래, 그런거야’

# 유쾌한 가족극? 또 등장한 혼외자 코드

주요한 갈등요소 ... 뻘한 이야기로 시청자 흥미 유발

‘밖에 낳아온 자식’ 코드만큼 낡은 소재가 또 어디 있을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평화로웠던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광경은 드라마에서 닳고 닳은 자극적 클리셰(cliche)다.

하지만, 이게 여전히 현실에서도 반복 재생산되고 있으니, 드라마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구닥다리’라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힘들다.

불과 얼마 전에도 내로라하는 재벌기업 총수가 혼외자식의 존재와 불륜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니, 2016년 봄 주말 안방극장에서 혼외자 코드가 여전히 주요한 갈등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걸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주말 밤 9시 경쟁하는 MBC TV ‘가화만사성’과 SBS TV ‘그래, 그런거야’가 나란히 혼외자 코드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이야기에 살을 붙여나가고 있다.

같은 소재지만 두 드라마의 요리방식이 그에 따른 시청자의 반응은 다르다. 진부한 소재지만 시청자는 또다시 그 진행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 뻘하지만 또다시 관심이 가는... = ‘가화만사성’이나 ‘그래, 그런거야’는 둘 다 출발 선상에서 ‘막장 코드 없는 유쾌한 가족극’을 선언한 드라마다. 하지만, 그런 선언과 달리 둘 다 혼외자식을 초반부터 출연시켰다.

그만큼 혼외자식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더는 ‘드라마적’이지 않다는 반증인지, 제작진 윤리시수가 일반적인 인식보다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불륜도 아닌 혼외자식을 등장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유쾌한 가족극’과 거리가 있는 건 분명하다.

풀어내는 방식은 다르다. ‘가화만사성’은 1회에서 바로 봉가네의 장남 봉만호(장인섭 분)의 혼외자식이 등장했다. 역책 조각지쳐 한미순(김지호)과 딸 둘을 낳고 사는 철부지 봉만호가 바람을 피운 주세리(윤진가)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나면서 이 봉가네는 바로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그래, 그런거야’는 지난달 15회에서 이 코드를 터뜨렸다. 유씨네 집안 손녀 중 하나인 깔끔한 완벽주의자 유세희(윤소이)가 결혼 1년 만에 남편 나현우(김영훈)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영화 ‘과속스캔들’과 ‘고전 신과’가 뒤섞였다. 나현우가 고등학교 때 셋방 살던 누나랑 ‘원나잇 스탠드’를 했는데, 한참 뒤 그 누나가 중학생이 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사연이다.

나현우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유세희와 결혼했고, 그 누나가 최근 병으로 죽으면서 이러한 사연이 들 통났다.

시청자들은 이 두 커플의 갈등에 집중하고 있다. 뻘한 이야기지만 시청자들은 이들 커플의 갈등과 전개과정에 또다시 주목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분노와 절망은 나의 힘 = ‘가화만사성’은 지난 1일 19회에서 한미순이 자식들을 보고 참고 살려고 했지만, 반성을 모르고 뻘뻘하게 구는 봉만호에 질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혼하면서 한미순이 봉만



가화만사성

호에게 퍼부은 말들에 시청자들은 “통쾌하다”, “체증이 가신다”는 반응을 보였고, 시청률도 16.3%를 기록했다.

‘가화만사성’은 수많은 아침드라마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불륜의 피해자인 조각지쳐가 이혼 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성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시청자들은 “절대 봉만호와 한미순을 재결합시키지 말라”며 한미순을 응원한다. ‘그래, 그런거야’는 결혼 전, 그리고 오래전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정상참작’한 유세희가 이혼 대신 결혼생활 지속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다.

“요즘 세상에 말이 되는 일이나”는 지적도 있지만, 시청자들은 “세희의 비중을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들 커플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희 역을 맡은 윤소이가 절제해서 표현하는 절망과 분노의 연기가 회자되고 있다.

유세희는 “끝내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놓고 일단 가보자”라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 짐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에게는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유세희의 당찬 모습이 ‘참고 사는 여자’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 이러한 유세희의 선택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드라마의 동력이 되고 있다.

## 유이·이상윤

### “연인사이에요”



컬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28·오른쪽)와 배우 이상윤(35)이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3일 전해졌다.

이상윤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상윤과 유이가 올해 초 한 모임에서 만났으며, 호감을 느끼고 연락해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이 소속사 플레디스도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예쁘게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윤은 2004년 맥주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는 점 때문에 화제를 낳았다. 그는 큰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내달 서영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아이돌스타로 인기를 얻은 유이는 MBC TV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아 연기를 시작했다. 최근 종영한 MBC TV 주말극 ‘결혼계약’에서는 시한부 실금남 역을 훌륭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아 연기를 시작했다. 최근 종영한 MBC TV 주말극 ‘결혼계약’에서는 시한부 실금남 역을 훌륭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2015 엠넷 아시아인뮤직어워즈(MAMA) 레드카펫 행사’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캡틴 아메리카’ 400만 관객 돌파

개봉 6일만에 외화 최단 기록

흥행 대작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이하 ‘시빌 워’)가 외화로는 최단 기간 관객 400만명 돌파 기록을 수립했다.

3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시빌 워’는 2일에 관객 26만2251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수가 419만6503명에 달했다. 개봉 6일 만에 관객 400만명 고지에 오른 것으로, 역대 외화 중 가장 빠른 관객 동원 속

도다. 기존 기록은 전작인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지난해 수립한 7일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빨리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영화는 ‘명량’(2014)으로 5일이다.

앞서 ‘시빌 워’는 개봉 첫날인 4월 27일에 관객 72만7941명을 동원해 역대 최다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빌 워’는 마땅한 경쟁작이 없어 당분간 관객몰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그래, 그런거야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공개토탈방 50 안녕 우리말(재)	00 수상한 휴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축축화)(재)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good-bye, 미스터블랙(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골짜리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종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2	00 열린채널 30 우리들의 공교시(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노스터(재) 25 드림지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터(재)	00 열린 TV시청자세상
3	00 한국인의 밥상(재) 55 튜닝생활체조	05 자동차부속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키트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슬론 풋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골짜리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어린이날 특집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왕인 벗꽃 축제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55 송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스페셜 (편따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뉴욕TV페스티벌 수상작 (넥스트 휴먼)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4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0 나이트 라인

EBS1		5월 4일 (음 3월 28일 丙戌)
05:00 EBSe 생활 영어	〈부모, 리얼한 성공육에 도전〉	15:10 세계사 시간여행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20 꼬마철학자 후고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감정국과 대파마를 볶음밥〉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우간다 르네조리드레일 승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6:10 세계의 논	11:40 한국기행(재)	16:00 출동! 슈퍼강사(재)
〈의학 혁명 알레르기〉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덩동영 유치원 1~3(재)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슈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초대세(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3:40 사이인3 왔다 사춘기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지
09:00 출동! 슈퍼강스	14:00 책과 팜	19:30 EBS 뉴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엔타이로봇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크 오늘
		〈영동생 기차길 옆 오막살이〉
		20:50 세계테마기행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 이란 - 이스파한서 만난 축제, 노루즈〉
		21:30 한국기행
		〈불나몰살〉
		21:50 EBS 다크 프라임
		〈화산 - 위대한 불의 땅〉
		22:45 극한직업
		〈특별 장어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와이키기 브라더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 (음 3월 28일 丙戌)
子	48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사극에 놓여 있다. 60년생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72년생 영문도 모른 채 함께하게 될 것이다. 84년생 반드시 억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6	午
丑	49년생 갈보양은 허술해도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61년생 동쪽으로 진행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73년생 부족함이 뚜렷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85년생 선택하기에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71, 83	未
寅	50년생 부수적인 요소들까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62년생 보기에 시원찮았던 것이 한 몫 하리라. 74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86년생 감흥이 혼재하니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자. 행운의 숫자 : 60, 77	申
卯	51년생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헛수고로 귀착될 모양 세이다. 63년생 상대의 은덕으로 인해 감동받겠다. 75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7년생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07	酉
辰	40년생 막히거나 험글어진 것이 해결될 수도 있다. 52년생 함께 하자. 64년생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다. 76년생 새롭기는 하지 만 기여도가 신통치 않다. 88년생 불협화음은 많은 것을 알아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53	戌
巳	4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외의 것이 태반이어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53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65년생 생애 율리만 완성한다. 77년생 부담스러울 것이다. 89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행운의 숫자 : 44, 61	亥
		42년생 영문도 모른 채 휘둘릴 수도 있는 성극이다. 54년생 몹시 애를 먹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66년생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지 되돌아볼 일이다. 78년생 사소하게 여겨 왔던 것 속에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4, 74
		43년생 서행하면 특이요, 급행하면 반드시 실이로다. 55년생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67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79년생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20
		44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흔한 일은 아닐 터이니 잘 살펴보자. 68년생 복잡한 것 같지만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다. 80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87, 69
		45년생 누적인 것을 해소해 줘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57년생 지나간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9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리라. 81년생 거인 길을 되돌아보면 점검해야 할 일이 눈에 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27
		46년생 편안한 마음으로 휘둘러라. 58년생 시작이 좋다고 결 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니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82년생 아무리 발똥 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72
		47년생 애초에 알고 있었던 바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59년생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71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된다. 83년생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89